

6월 2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2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기업실적 호조에 급등..다우 2.1%↑	뉴욕 주식시장이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급등세로 마쳤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172.54포인트(2.08%) 상승한 8,472.40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7.20포인트(2.08%) 오른 1,829.54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9.32포인트(2.14%) 전진한 920.26을 각각 기록했다. 경제지표가 엇갈리면서 보험권에서 출발한 주요 지수는 베드 베스 앤 비온드와 레나의 실적 호조 소식이 경제 낙관론을 자극하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았고 이후 국채 입찰 수요가 견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데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일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축소,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자 점차 상승폭을 늘려나간 뒤 일일 최고점 수준에서 마쳤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의회 증언을 통해 메릴린치 인수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적극 해명하면서 재신임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투자심리를 지지했음.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5%로 상향 확정되었고 이는 월가 전망에 비해서도 개선된 수치임.
美연준 긴급 대출 프로그램 축소..금융안정 `청신호`	연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진행해왔던 긴급 대출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는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됨. 연준은 이날 금융시장 여건 개선을 반영해 긴급 대출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인 기간물입찰대출(TAF)과 기간물국채임대대출(TSLF) 프로그램을 축소 운용하기로 했음. 연준은 그러나 TSLF를 비롯해 프라이어리딜러대출(PDCF), 자산담보부기업어음머니마켓펀드유동성대출(AMLF), 기업어음자금대출(CPFF) 등은 운용시한을 내년 2월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음.
1Q GDP 성장률 -5.5%로 상향 확정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5.5%로 상향 확정됐다. 미국 경제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경기후퇴(recession) 속도는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상무부는 1분기 GDP 성장률이 수정치 -5.7%에서 -5.5%로 상향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5.7%에 비해서도 개선된 것임. 이로써 미국의 GDP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0.5%, 4분기 -6.3%에 이어 3분기 연속 위축 국면을 지속했고 미국의 GDP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1차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지난 1975년 이후 34년만에 처음임.

제목	주요 내용
유가 70弗 돌파	국제 유가는 나이지리아의 정정 불안 여파로 상승, 일주일만에 70달러 선을 넘어섰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56달러(2.3%) 오른 70.23달러에 마쳤음. 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18일 이후 일주일만에 처음임.
러시아, 대대적 은행 구제금융 고려	러시아가 미국이 실시한 조치 이상의 은행 구제금융을 고려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 FT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이고르 슈발로프 러시아 부총리는 26일 러시아 은행시스템 자본확충 방안 논의 회의에서 부실은행들의 지분 인수 제안을 고려하고 있음. 현재 러시아 정부가 고려 중인 안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 정부가 대형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해 루블화표시채권(OFZ)을 발행하고 은행들의 우선주를 인수하는 것. 단, 미국과 달리 러시아 정부가 이사회에 이사 자리를 갖고 거부권 등도 행사할 계획.
日기업들, 1분기 해외 계열사 매출 33.9% 감소	일본 무역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의 해외 매출은 지난 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 또 사상 처음으로 중국 매출이 감소한 것을 포함, 모든 지역에서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 북미 지역의 경우 39.3%가 감소했으며, 유럽과 중국 매출은 각각 40.3%와 16.2%가 줄었음. 다만, 2분기 해외매출 증가를 예상하는 기업체 비중에서 감소를 전망하는 기업체 비율을 뺀 경기동향지수는 3.4포인트를 기록, 3분기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음. 주로 화학과 전자산업에서 매출 증가가 예상됐으며 지역별로는 중국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 10달 연속 흑 자...흑자폭은 36억弗로 감소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36억3,000만달러로, 지난달 42억5,000만달러에서 6억2,000만달러 가량 줄었음. 경상수지는 지난 2월부터 10달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게 됐음.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누적 경상수지흑자는 164억5,000만달러로 늘어났음. 이는 여행수지와 기타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늘었고, 환율 하락 등에 영향 받아 경상이전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이 전반적으로 흑자폭을 줄여들게 했음. 또한 상품수지에서도 5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흑자규모가 10억달러 가량 줄었음.
대우조선, 2억달러 규 모 여객선 수주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오는 26일 유럽지역 선사와 약 2억달러 규모의 여객선 2척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길이 145미터, 폭 23미터로 총 2,400명의 승객과 450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쾌속여객선인 것으로 전해졌음. 대우조선해양은 이 선박을 오는 2012년에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 대우조선해양의 이같은 여객선 수주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주력제품이었던 상선분야의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여객선과 같은 특수선 분야로 눈을 돌린 결과로 풀이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